

# 지주전환으로 금융종가 부활... 해외진출-디지털혁신 총력

## 새해 새 전략... 쏘앗 (So What)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창립 120주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차별화된 영업, 리스크 선제 관리

서민대출 금리 2%p까지 감면 등 소외계층·중소기업 지원 강화도

오는 14일 우리금융지주가 출범한다. 우리은행이 창립하는 12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지주전환으로 금융종가로서의 부활 신호탄을 쏘게 됐다.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겸 우리은행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번 지주사 전환을 발판 삼아 최고의 금융그룹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자"며 "올 한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10년, 20년 후가 달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사자성어로는 '정익구정(精益求精)'을 제시했다. 최고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의미다.



손태승 우리은행장.

고객	고객중심 마케팅 강화
서비스	금융명가 지배력 확대
리스크	최강의 리스크 관리
글로벌	글로벌 금융시장 제패
디지털	디지털 혁신주도
등반성장	금융의 사회적 가치 실현

### ◆ 지주 전환으로 '금융종가' 부활

우리은행의 지난해 3분기 누적 순이익은 1조9034억원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3분기 만에 2조원에 육박하는 호실적으로 2017년 연간 순이익의 1조5121억원을 훌쩍 뛰어 넘었다.

전 부문에서 수익창출 능력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지만 올해 상황은 녹록치 않다.

손 회장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과를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만의 주특기 영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자산관리, 기업투자금융(CIB) 그리고 혁신성장 부문을 집중 육성해 다른 은행이 따라올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고, 차별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지주 전환으로 사업다각화의 기반은 마련됐다. 우리금융은 우리은행을 포함한 기타 6개 법인을 자회사로 두는 구조로 출범하지만 비은행 포트폴리오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공격적인 확장 못지 않게 손 행장이 강조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다.

그는 "작년 연체율과 부실채권(NPL)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정도로 건전성 부문이 크게 개선됐다"며 "부실우려 자산은 감축하고 모니터링은 강화하는 등 여신관리는 선제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 해외진출, 질적성장 가속화

현재 우리은행의 해외 네트워크 수는 430개다. 독보적인 국내 1위로 세계 20위권 수준이다.

손 회장은 "규모 뿐만 아니라 수익 면에서도 명실상부한 월드 클래스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현지 리테일 영업과 IB 영업을 강화하는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확충해 나가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글로벌 수준의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역량을 갖추고,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 혁신은 올 한 해도 전사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그는 "디지털 금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디지털은 우리은행이 확실한 1등'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심어주도록 해야 한다"며 "사용자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고, 영업점에 전자 문서시스템을 신속히 도입해 고객 편의성을 극대화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창립 120주년을 맞아 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더 확대한다.

손 회장은 "정통 민족은행이라는 역사적 전통성을 지키면서 고객에게 보답하기 위해 금융 소외계층과 중소기업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민금융대출 금리를 최대 2%포인트까지 감면하고,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혁신성장기업 지원에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신한銀, 소상공인에 1000억 저금리 대출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 경기도 소기업 등 금융지원 확대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기도 소재 소기업 및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65억원을 특별 출연했으며, 약 10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한도를 조성했다.

신한은행은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 금융 지원이 필요한 경기도 지역 내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특별 보증을 제공하고, 최저 연 2% 초반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번 특별 보증대출은 경기도 지역 내 4000여 개 소기업·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한은행과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보증료 감면, 보증 한도 확대 등 혜택도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기보, 제2기 '청년기술평가체험단' 모집

기술보증기금은 청년들의 중소기업 일자리 경시 풍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구인난 해소를 돕기 위해 '제2기 기보 청년 기술평가체험단'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체험단은 대학생 등 구직자들이 기보 직원과 함께 우수 중소·벤처기업 현장을 체험하고, 작성한 체험기를 장래 구직희망자들에게 소개함으로써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기보는 이달 10일부터 21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제2기 체험단 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대학생, 마이스터고



기술보증기금 전경.

교생 등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 구직자이다. 자세한 사항은 기보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된다. 기보는 서류심사를 통해 약 250명의 인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김희주 기자 hj89@

## 신용대출 한도 올리고, 금리는 내리고

케이뱅크, 직장인 대출혜택 강화

케이뱅크는 직장인 대상 신용대출 상품의 한도 및 금리 혜택을 강화했다고 10일 밝혔다.

케이뱅크는 '직장인K 신용대출'과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의 최대 한도를 기존 최대 1억원에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증액했다.

이와 함께 '직장인K 마이너스통장'은 가산금리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월 50만원 이상 급여이체 조건만 충족하면 0.50%포인트의 우대금리를 받아 최저 연 3.53%로 마이너스통장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원리금균등이나 만기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는 직장인K신용대출은 최저 연 3.33%이다.

/안상미 기자

## 이대훈 농협은행장, 전국 돌며 본격 현장경영

세종, 부·울·경 지역 시작으로 이달 한 달 간 소통행보 나서

NH농협은행은 이대훈 행장이 지난 2일 세종, 9일 경남·부산·울산권역을 시작으로 1월 한달 간 전국을 돌며 현장과의 소통경영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남 창원에 위치한 경남영업 본부를 방문한 이 행장은 회의 참석에 앞서 인근 영업점과 노조사무실을 방문해 지난해 열심히 노력해 준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건의사항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2019년 상반기 현장경영'에 참석한 이 행장은 참석자들에게 지속성장 1+ 운동 실천을 위해 ▲고객중심 신뢰 경영 ▲소통 활성화 ▲조기사업 추진 태세 확립 ▲미래를 위한 준비 ▲공공 금융 전문성 확보 ▲금융 전문가 양성 등을 당부했다.

이 행장은 "지난해 임직원 모두 열심히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이 지난 9일 경남 창원시지부를 방문해 직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NH농협은행

노력해 준 결과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며 "올해도 기본에 충실하고 수익기반을 견고히 구축해 고객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건강한 은행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이후 인근 영업점을 방문한 이 행장은 내방 고객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은행이 되겠다"며 고객과 소통의 행보도 이어나갔다.

/안상미 기자

## 우리은행, e스포츠 후원으로 1020 마케팅 강화



정재봉 우리은행 부부장(오른쪽)이 박준규 라이엇 게임즈 한국대표와 지난 9일 서울시 종로구 그랑서울 톨파크에서 이(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갖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CK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 현장 이벤트 등 브랜드 홍보

우리은행은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그랑서울 톨파크에서 라이엇 게임즈와 이(e)스포츠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LCK)'의 타이틀 스폰서 조인식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조인식에는 정재봉 우리은행 부부장, 박준규 라이엇 게임즈 한국대표 등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양사는 오는 16일부터 열리는 LCK 스프링의 공식명칭을 '2019 스무살우리 LCK 스프링(Spring)'으로 확정했다.

우리은행은 LCK 대회의 '2019 스프링 스플릿', '2019 서머 스플릿', '2020 스프링 스플릿', '2020 서머 스플릿' 등 4개 스

플릿의 타이틀 스폰서를 맡고, 라이엇 게임즈는 LCK 중계방송, 톨파크 경기장, 현장 이벤트 등을 통해 우리은행 브랜드를 홍보한다.

스무살우리는 꿈꾸는 청년의 도전과 혁신을 응원하고 성장을 지지함으로써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자 출시한 우리은행의 유스(Youth) 브랜드다. LCK는 온라인 배틀 게임인 리그 오브 레전드를 이용해 10개 프로팀이 우승팀을 결정하는 대표적인 e스포츠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e스포츠는 2018년 아시안게임 시범 종목으로도 채택되는 등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며 "e스포츠 타이틀스폰서 후원을 통해 국내 10~20대 고객층에 대한 마케팅과 글로벌 홍보 효과를 강화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